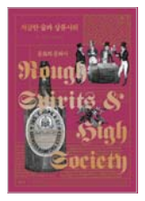
여관·와인바·선술집…다양한 공간에 얽힌 술 문화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저급한 술과 상류사회

루스 볼 지음, 김승욱 옮김



정치인·예술가·지식인들 교류의 장이 된 음주공간
지난 500여년간 영국 음료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나
커피하우스·찻집도 소개…150여장 일러스트도 수록

영국의 유서 깊은 와인바는 당대 정치인, 예술인, 지식인들의 교류의 장이자 수준 높은 문화를 꽃피웠던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루아크 제공〉

알코올, 카페인, 담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중독성 약물'이다. 물론 이 세 약물은 문화권에 따라 다양하게 수용됐다. 그 가운데 알코올은 즐거움을 위한 공간, 다시 말해 유흥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중독성 약물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 마약과 함께 술은 일탈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다. 물론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유흥과 관련된 공간에서의 술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술이 유흥을 위한 공간 탄생에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다. 또한 '새로운 것들'과 결합해 새로운 문화가 발현되는 토대가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1714년 로버트 월폴을 시작으로 1762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거의 모두 배출해낸 곳이 있는데 다름 아닌 와인바 '키트캣클럽'이다. 이곳은 윌리엄 콩그리브, 존 밴브루, 매투 프라이어, 조지 스테프니 같은 작가들도 몸담았다.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음주공간이 정치인, 예술가, 지식인들의 교류 공간으로 확장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술과 술집, 즉 음주와 음주공간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룬다.

다양한 공간에 얽힌 술에 관한 이색적인 문화사를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주류 역사 연구자이자 제조 전문가인 루스 볼이 펴낸 '저급한 술과 상류사회'는 술에 관한 매혹적인 이야기다. 저자는 500여 년간 유럽, 그 가운데서도 영국의 음료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당대의 공간과 연계해 들여다본다. '저급한'과 '상류'의 상충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지만 일정 부분 음주를 매개로 문화예술이 꽃피웠던 사례를 보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한다.

대표적인 공간은 여관, 와인바, 선술집, 커피하우스, 한잔집, 티하우스다. 저자는 중세가 끝나갈 무렵 여행자들이 늘어난 탓에 영국 곳곳에 자리 잡은 여관 이야기부터 꺼낸다. 원래 가난한 여행자들이 유숙하며 음주를 할 수 있는 곳이 여관이었다.

그러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지역 여관 주인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우체국장' 역할까지 했다. 여관에서 술을 마시며 거래를 하는 관행이 상업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며, 여관 손님들은 더없이 좋은 거래 증인이 되기도 했다.

반면 와인바 클럽은 유명 회원들을 거느리며 존재해왔다. 일례로 1830년에 창립된 '애서니엄클럽'은 '학문, 문학, 예술 분야의 저명인사'를 회원 자격으로 뒀는데 연극 관련 공간까지 두고 있을 만큼 전문적이었다. 그들이 뒷방에서 담화나 나누고 있었다면 오랜 세월 존립할 수 없었을 거라는 얘기다.

저자는 서민들의 선술집도 조명한다. 이전의 와인바는 유명 정치인, 예술가들의 회합 장소였지만 더 이상 부자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었다. 저자는 "맥주의 질이 좋아진 덕분에 부자들 중 일부가 사교계에서 유행하는 술로 맥주를 받아들이게 됐다"며 "50년 전만 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이후 선술집은 여러 기술자들의 노동조합과 직업소개소 역할까지 감당했다. 한마디로 서민 공동체의 주춧돌로 자리잡았다는 말이다.

"18세기 중반 무렵에는 선술집 지배인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존경할 만한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부유한 여관 지배인의 사회적 지위와는 아직 비할 바가 아니었다."

저자는 술 외에도 커피하우스 이야기도 언급한다. 오스만제국의 커피하우스에서 커피 맛에 빠진 상인 중 일부가 커피를 들여오면서, 새로운 사교 장으로 커피하우스가 부상한다. 특히 공화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평판을 얻었고 이후 업계의 중요 정보가 공유되면서 증권거래소 설립의 기폭제가 됐다.

이밖에 저자는 하층민과 노동자를 위한 '한잔집' 같은 술집, 술을 마시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찻집'도 들여다본다.

책에는 유럽과 미국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소장된 150여 장의 일러스트가 수록돼 있어 보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음주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낯설지 않다. 술문화는 동서양을 넘어 대동소이하기 때문인 것 같다.

〈루아크·2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이 문장은 내 삶을… 조 페슬러 지음, 홍한별 옮김

문장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가. 작가들은 어떻게 영감을 받고 작품을 창작하는가. 미국의 문예지 '애틀랜틱'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33명 작가들의 대답을 토대로 엮은 책이 출간됐다. 'The New Food Economy' 편집장인 조 페슬러가 펴낸 '이 문장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작가의 인생을 엿본 문장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처참하면서도 경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잭길버트의 시를 본 후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 구절이 명확하게 말해준다"고 고백한다. 주노 디아스는 '빌러비드'를 읽고 문학이 역사의 희생자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닐 게이먼은 "내 글 안에서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며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글쓰기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든 예술 스타일은 완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부분에서 온다는 것이다. 할레드 호세이니와 에이미 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온전히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작가들의 외로움을 공감하며 이것이 글쓰기의 원동력이 됐다고 고백한다.

톰 페로타는 민주주의에 '1인 1표'가 있듯이 문학에는 아주 작은 인물이라도 '1인 1진실'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중대한 진실을 말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학이다"라고 문학의 의미에 대해 상찬했다.

〈위즈덤하우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죽음의 격차 니시오 하지메 지음, 송소영 옮김

법의학자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시신을 마주한다. 대체로 범죄 피해나 자살, 고독사와 연관된다. 달리 말하면 생존 당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전제돼 있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실직 후 월세가 밀린 집에서 동사한 50대 남성, 혼자 사는 집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70대 여성, 치매 아내를 목욕시키다 돌연사한 80대 등. 법의학자는 부검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죽음 속 격차를 마주한다.

효고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주임교수로 재직 중인 니시오 하지메가 펴낸 '죽음의 격차'는 법의학자들이 목격하는 생생한 현실이 담겨 있다. 고독사, 자살, 버려지는 갓난아기 등 삶의 격차는 곧 죽음의 격차로 전이된다.

저자는 지난 20년 동안 3000여 구의 시신을 묵묵히 부검하면서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했다. 그는 차가운 스테인레스 부검대 위의 주검이 마지막으로 만난 '면회자'다. 부검한 전체 주검의 약 50%가 독거자였다. 20%가 생활보호 수급자, 10% 조금 안 되는 사람이 자살자였다. 30% 정도는 정신질환자였고 치매환자는 전체의 5%에 해당했다. 여기에 신원미상 죽음도 전체 10%에 달했다.

이 통계는 '변사체'가 되는 죽음 자체가 사회의 음지 속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보여준다. 죽는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죽은 자의 몸에는 그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 법의학자는 그 흔적을 통해 영원한 침묵을 선택한 이들이 보내온 간절한 '신호'를 해석하고 남겨진 자들에게 목소리를 전한다. 저자는 법의학을 통해 죽음의 격차가 만연한 이 사회와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도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빈티지하우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암수록 유박 지음, 정민·김영은·손균익 외 옮김

'화암수록'을 지은 유박(1730~1787)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평생 화훼를 가꾸며 지냈다. 말년에는 살림살이를 탕진할 만큼 화훼수집에 몰두했다고 한다. 사시사철 몇십 년을 꽃과 함께하다 보니 그의 거처인 '백화암'(百花菴)은 당대 여러 문인의 글에 등장하기도 한다. '백화암'은 사시사철 온갖 꽃이 만발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출세하는 것은 포기했어도 원예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았던 유박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원예 취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망라해 '화암수록'을 썼다. '화암수록'은 강희안의 '양화소록'과 함께 조선 시대 2대 원예전문서로 꼽힌다.

유박은 사람들이 외래종이나 조정에 바치는 품종만을 귀하게 여긴 당시의 화훼문화의 병폐를 지적했다. 또한 당대 이미 고전으로 자리 잡은 '양화소록'이 주로 중국의 사례를 많이 참조한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조선에서 원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화훼의 지위와 체계는 온전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화훼의 등급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화훼를 다섯 종씩 9등급으로 나누고 꽃을 부르는 각종 명칭과 키우는 법, 꽃말, 열매의 생김새, 맛과 향, 보관법 등 화훼의 특성을 꼼꼼히 정리했다. 그중 스물두 가지 꽃에 대해서는 따로 4~8자의 간략한 평을 달았다. 지금은 흔히 쓰이는 방식이지만 유박은 처음으로 개화 시기를 월별로 정리했다. 여기에 원예를 소재로 한 유일한 연작시조 '화암구곡', '매농곡' 그리고 한글로 적은 '촌구' 등을 비롯해 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글을 함께 수록했다. '한시미학산책', '다산의 재발견' 등을 펴낸 정 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와 김영은·손균익씨 등이 역자로 나섰다.

〈휴머니스트·1만7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 64회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신 청
음악·무용·국악 부문
2019. 4. 3(수) - 4. 10(수)
미술·작문 부문
2019. 5. 13(월) - 5. 15(수)

참자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경연기간 4월 18일(목)~5월 28일(화)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평일 09:00~18:00(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사 10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 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9년 4월 15일(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시 상 우수학교상
개인 및 단체 :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문 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